

고흥 출신 대학생, 행정 인턴제 발대식



2020년 하반기 대학생 행정인턴제 발대식
2020. 7. 22(수) 고흥군

고흥군은 고흥 출신 대학생 107명을 행정 인턴으로 선발하고 22일 군청 우주홀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대학생 행정 인턴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방학기간 다양한 경험

코로나19 영향 높은 관심...2배 확대 107명 선발
송귀근 군수 "잠재된 역량 발휘 값진 경험 되길"

을 선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대학생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면서 하반기 대학생 행정인턴제에 학생들이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이면서 143명이 신청을 했다.

이에 군에서는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공직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근무일수를 조정하여 107명을 확대 선발했다.

1차 54명은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차 53명은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15일간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행정 및 현장 업무 등을 보조하게 된다.

1차 참여자가 참석한 발대식에서 송귀근 고흥군수는 "방학기간 동안 다양한 긍정 경험을 통해 고흥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대학생 행정인턴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자신의 잠재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값진 경험으로 장차 우리 고흥을 빛낼 미래 인재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순천시 덕연동 '오소오소 마을활력소' 개소 1주년...주민자치 거점 자리매김

순천시 덕연동에 위치한 마을공동체 공유 공간인 '오소오소 마을활력소'가 개소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7월 전남 최초로 문을 연 후,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전국 마을활력소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 마을활력소 성공사례로 자리매김, 전국 각지 벤치마킹 쇄도
오소오소 마을활력소는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한 대표적인 주민자치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10월에 열린 '제18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주민자치 제도정책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후, 11월에는 건전한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KBC 광주방송 문화재단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가 매년 공동으로 개최하는 '2019 좋은이웃 밝은 동네 콘서트'에서 밝은 동네(단체) 부문 으뜸상 수상, 올해는 전라남도 주관 읍면동 현장행정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한, 주민 주도로 성공 신화를 쓴 오소오소 마을활력소의 사례를 보기 위해 전국의 주민자치회, 공무원 등 10여개 단체 200여 명이 벤치마킹을 다녀갔으며, 순천시는 덕연동의 성공을 발판삼아 올해 서면과 도사동에 각각 마을활력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순천시덕연동 문미정 동장은 "오소오소 마을활력소와 적극협력해 다양한 공동체가 교류하고 소통하는 장을 확산시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마을자치를 선도하는 마을 민주주의 1번지 덕연동을 만들어 가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제5기 운영자 모집

오는 27일 여수문화홀에서 접수...1년간 운영

여수시가 여수밤바다의 아이콘 낭만포차를 내실 있게 운영할 제5기 운영자를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오는 26일까지 공고하고 27일 여수문화홀에서 접수 받는다.

신청 자격은 여수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자로 직계가족 포함,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총 18명으로 일반 시민, 청년층, 인근지역주민, 기타(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북한이탈주민)로 나뉘 계층

별로 선발한다.

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1차 서류 심사도 각 계층별 모집 인원의 3배수인 54명을 선발하고 2차 음식 품평회를 통해 최종 1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최종 18명은 각종 친절 교육 등을 이수한 후 2020. 10. 1. 부터 2021. 9. 30일 까지 1년간 낭만포차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동부취재본부 정성용 기자

순천시 서면 마을카페 '도란도란' 개소

서면 주민자치회·행정복지센터 함께 만든 주민공유카페

순천시 서면행정복지센터는 청사 내 유휴 부지에 마을카페 '도란도란'을 21일 개소했다.

서면 마을카페 "도란도란"은 2018년 순천형 희망마을(2+α)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연차 사업으로 3년 동안 부지조성, 시설공사와 외형 디자인, 내부 물품 등을 확보해 21일 개소식을 갖게 되었다.

컨테이너 두 개를 합쳐 핑크컬러의 도트 무늬를 포인트로 디자인된 '도란도란' 마을카페는 서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며 음료와 지역 특산물 판매가 이루어진다.

또한, 서면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유 공간으로 소모임,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김관수 서면 주민자치회장은 "마을 카페를 통해 우리 시 특산품을 알리는데 노력하고, 지역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영화 서면장은 "마을카페 '도란도란'은 민관이 함께 3년간 기획하고 협업하여 만든 순천시 희망만들기 사업의 결실"이라며,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직접 운영하는 주민 공유 카페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양국가산업단지 내 마지막 개발지인 명당3지구가 올해 3월 준공되어 지적확정측량과 토지공부정리를 완료하고 분양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분양대상은 산업시설용지 32필지, 지원시설용지 39필지, 상업용지 2필지, 주차장시설용지 3필지 총면적 306,686㎡이며, 현재 분양된 용지는 총 30필지(53,871㎡, 산업용지 7, 지원용지 21, 상업용지 2)로 필지수 대비 40% 매각액 대비 20.7%이다.

상업용지는 100% 분양되었고, 근린생활·판매·업무시설 등 입주 가능한 지원시설용지 54%, 연료전지발전업체, 운수업체, 비금속 제조업체 등 산업시설용지 23%가 분양계약 됐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투자 문의가 주춤하는 추세이나 지역 내 관련 기업체는 물론 타지역 산업단지, 기업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임주대상 업종은 산업시설용지에 창고·운송관련서비스업(H5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D35), 복합업종(C23, C24, C25, C29)이 해당되나 분양 희망 업체와 협의해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맞춤형 공장용지 분할과 입주업종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장성진품한우식육식당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37-56 TEL : 061)394-0092